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1. 11.(화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 철도건설과	담당자	• 과장 김민태, 사무관 김상수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3953, 3957	
보 도 일 시	2022년 1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KTX 타고 서울~거제 2시간대에 간다

### - 국가균형발전사업 최대 규모,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·고시 -

- ◆ 남부내륙철도 김천~거제 간 총 177.9km, 5개 정거장 신설
- ◆ '22년 설계 착수, '27년 개통 목표로 4조 8,015억원 투자
- ◆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'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'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'남부내륙철도'는 '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,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.9km(최고속도 250km/h)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.
- 남부내륙철도는 '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,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·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.
-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·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.

○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**KTX(1일 25회)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\***이 가능하게 된다.

- \* 서울발(KTX) : (거제 8회) 2시간 54분 (마산 2회) 2시간 49분
- \* 수서발(SRT) : (거제 7회) 2시간 55분 (마산 3회) 2시간 50분
- \* 광명발(KTX) : (거제 3회) 2시간 37분 (마산 2회) 2시간 32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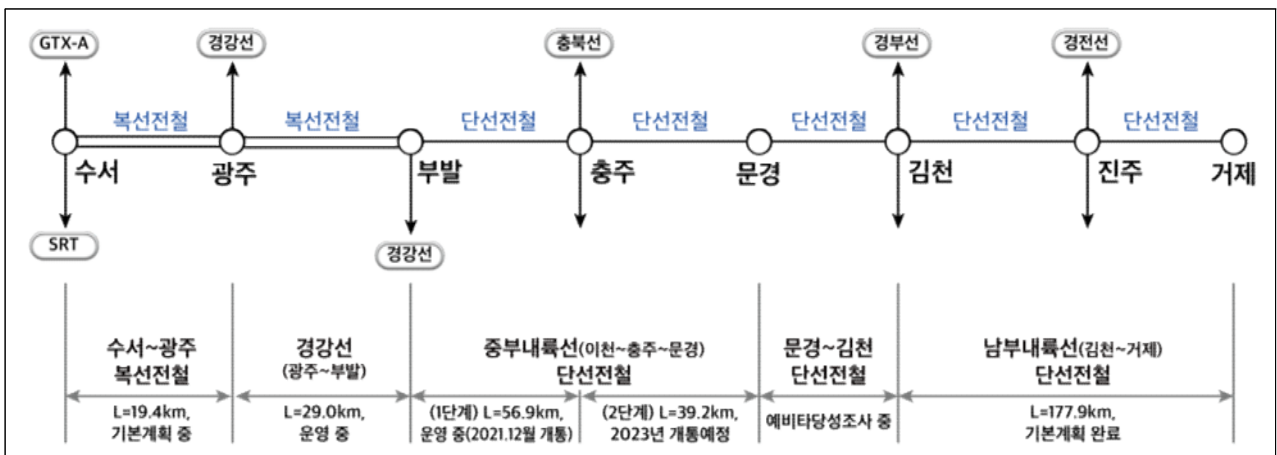
-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**지역경제에 활력**이 붙고,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**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**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\* 남부내륙철도 유발효과 : (생산효과) 약 11.4조원 (고용효과) 약 8.9만명 (한국개발연구원 지역산업연관모형 이용·분석)

○ 아울러, 수서~광주(22년 기본계획 중), 이천~충주(21.12월 개통), 충주~문경(23년 개통예정), 문경~김천(22년 예비타당성조사 중) 사업이 완공되면,

- 남부내륙철도는 경기·충청·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**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**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< 수서~거제간 구간별 사업 추진 현황 >



□ 정거장은 김천~성주~합천~진주~고성~통영~거제 및 마산역으로 **성주·합천·고성·통영·거제**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**김천역(경부선)** 및 **진주역(경전선)**은 환승역으로 **개량**하게 된다. (마산역은 현재역 활용)

-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\*하여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, 대중교통망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,

\* 「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」  
(’22.2월 착수 예정, 경남도)

- 더불어, 장래 광주~대구 철도(달빛내륙철도)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(가칭)을 설치하는 등 주요 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.

< 남부내륙철도 노선 약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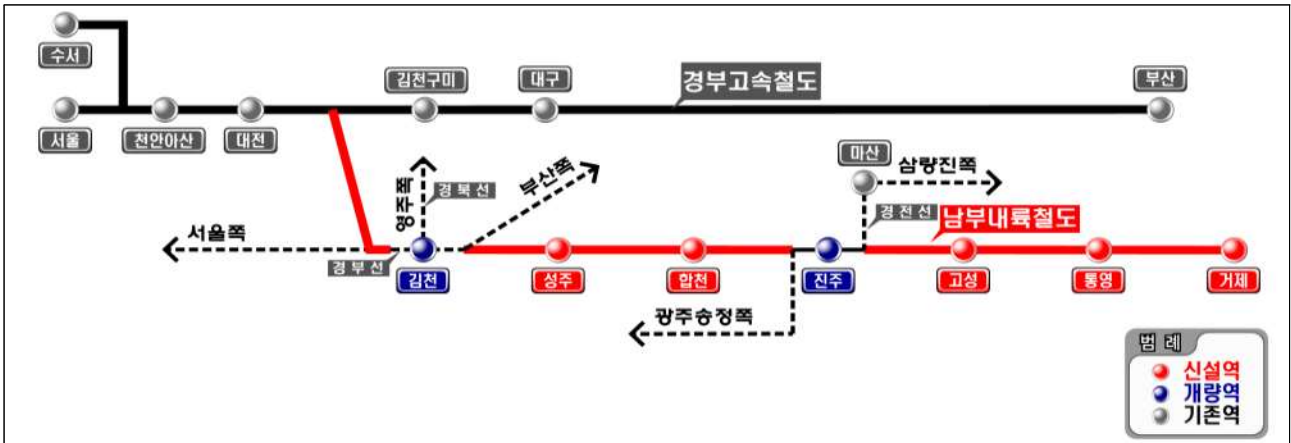
- 향후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 입찰(Turn Key)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, 스마트건설기술(BIM, IoT, 드론 등)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 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“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,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, 특히 안전장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상수 사무관(☎ 044-201-39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 1

## 남부내륙철도 사업개요

구 분	내 용
사업명	남부내륙철도(김천~거제)
사업내용	김천~거제간 단선전철 177.9km 신설
주요구조물	교량 17.7km(57개소), 터널 130.7km(62개소), 토공 29.5km
정거장(역사)	성주군, 합천군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(신설 5개), 김천, 진주(개량2개)
총사업비/사업기간	48,015억원 / 2022~2027년
사업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경부고속선 연계운행을 통해 수도권~거제간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불편을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</li> <li>-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</li> </ul>



### □ 주요 추진경위

- '11. 4 :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
- '14. 1 : 예비타당성조사(B/C 0.72, AHP 0.429)
- '16. 6 :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
- '19. 1 :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예타면제사업)로 선정
- '19. 2 : 사업계획적정성 검토(KDI)
- '19.11 : 남부내륙철도(김천~거제)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(국토부)
- '22. 1 : 기본계획(안) 고시

### □ 향후 계획

- '27년 말 개통 목표로 설계·시공 등 사업 추진



## 참고 2

## 남부내륙철도 노선도

